

| 에세이 제목 | 마음이 가는대로 |
|--|----------|
| 제출학생 학과 | 언론정보학과 |
| <p>벨소리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우울한 참에 잘됐다 싶어 전화를 받았다.</p> <p>“오랜만이다!”</p> <p>들뜬 여자의 목소리가 핸드폰을 찌렁찌렁 울렸다.</p> <p>“누구세요?”</p> <p>내 질문에 당황했는지, 그 여자는 내게 실망이라며, 서운한 듯 청얼거렸다. 그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에,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기억날 듯 했다.</p> <p>“어! 너..!”</p> <p>고등학교 동창에게 3년 만에 전화가 올 줄이야. 반갑게 인사를 하려던 찰나, 친구의 목소리가 또 한 번 전화기를 울렸다.</p> <p>“나 이번에, A학교로 편입 합격 했다!”</p> <p>A학교라면,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였다. 순간, 심장이 쿵-! 했다. 방금 전, 편입 불합격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구와 수다를 좀 떨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친구의 소식에 당황해버린 나였다.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입은 웃을 수 없었다. 심지어, 친구의 자랑이 길어질까 봐, 대충 핑계를 만들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끊자마자 한숨이 나왔다. ‘학벌이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 ‘근데 난 편입을 왜 준비했던 거지?’, ‘나한테 학벌 콤플렉스가 있나?’, ‘왜 그 친구가 밉지?’ 여러 질문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 친구처럼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충남대학교에서 추가합격 전화가 왔지만,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친구로 가득 차있었다. 대기업은 명문대학 학생들만 입사 할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도 생각났다. 생각은 점점, ‘학벌이 좋아야 성공 한다’라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었다.</p> <p>머릿속의 수많은 생각들은, 학기가 시작하자 잠잠해졌다. 당장 눈앞에 놓인 공부와 과제들을 하다 보니, 점점 무더진 것이다. 잠잠하던 생각들이, 다시 튀어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K 교수님의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첫 수업 때였다. 교수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즐거운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p> | |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말이었고, 난 그 때마다, ‘즐거운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까?’라는 의심을 하곤 했다. 그리고 언젠가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강의 노트 한 구석에 별표를 치고, 이렇게 적었다.

*즐거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못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행복할까?

두 번째 수업에서 교수님은, 컴퓨터의 등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교수님은 책의 한 구절을 낭독하셨다.

“세상에 나는 물건을 사람만이 독식해서는 안 되지요. 새와 곤충이 없이 사람만이 산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이 문장은 1993년 전우익 작가가 쓴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교수님은 혼자만 사는 세상은 행복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강의를 계속 이어 나가셨다. 그 문장이 그다지 와 닿지는 않았다. 세상은 타인을 생각 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시간에는, ‘팀 버너스 리’ 라는 유럽의 물리학자에 대해 배웠다. 1989년에 ‘웹’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었다. 굳이 상상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특허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특허를 주장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님은 버너스 리를 꽤 오랜 시간 설명하셨다. 버너스 리는 웹을, 사람들 간의 ‘협력의 공간’으로 봤고, 인류가 힘을 합한다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세상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지만, 너무 특이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강의 노트 한 구석에 내 생각을 적었다.

*돈을 못 버는 일을 왜 하지? 리버스 리는 돈에 관심이 없었나?

교수님은 리버스 리와 같은 여러 개발자들과 기업가들을 소개했다. 모자이크를 처음으로 개발한 마크 안드레센은 비상업적 용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모자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구글,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대기업들은, ‘중요한 다수 법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중요한 다수 법칙’은 내가 오래 기억하려고 만든 용어이다. 기존의 기업들은, 지출을 많이 하는 소수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것들을 깬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초반에 수익이 나오지 않아도, 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했다.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적자의 위기에도, 다수를 위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을 지 궁금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왜 한 걸까요?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기회를 저 버리면 서요!”

‘수업시간에 용기 내서 한 질문이 고작 이거라니’라는 생각에 창피해졌다. 하지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며 이렇게 답변하셨다.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시작 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수업에는 이런 인물들이 주로 등장한다. 그들은, 주로,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을 듣다 보면, 미디어의 역사나, 여러 서비스들과 용어들 보다,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업의 주제 또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철학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대부분 난생 처음 해보는 고민을 하게 했다. 다른 날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즐거움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만약 돈과 명예 자체가, 즐거움의 근원이라면?

난 그 당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 일은 대부분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즈음, 교수님께 용기 내어 메일 한 통을 보냈다.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즐거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소기업과,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역대 연봉의 대기업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는 과정 보다,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즐거움이 더 클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속물 같나’ 메일을 보낸 게 후회가 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답장이 왔다.

‘사실 저도 말은 쉽게 했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지금 나혜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 해주고 싶어요. 머리로 계산해서 좋고 유리한 길과, 머리로 따지면 별로지만 마음이 끌리는 일이 있다면, 후자를 선택하라고요. 그럼에도 막상 닥치면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라 생각해요.’

그 날,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의 방향이 진정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 즐거움을 찾으라는 말에 코웃음 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돈

을 많이 벌면 즐거울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개발자들과 기업가들의 정신을 공부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개발했는지 보다는, ‘왜’ 개발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수를 위한 개발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진정 즐기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한 일이 인생에 어떤 점을 찍는 것이라 한다면, 미래에 그것들을 어떻게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돌이켜 보니, 그 점들은 이미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종강시즌이 됐을 때, 교수님은 스티브잡스의 연설 중 일부를 소개했다. 이 수업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인생의 중요한 점으로 찍혀 있을 것이다. 컴퓨터커뮤니케이션 수업은 마음으로 배운다는 것이 뭔지를 알려준 수업이었다. 그리고 교수님이 첫 날 말씀하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즐거운 일을 선택하라’는 말이 더 이상 진부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내가 꼭 해내고 싶은 숙제가 되었다.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소개하는 아이처럼, 교수님은 늘 수업을 즐겁게 진행하셨다. 그런 교수님의 모습에 같이 신나기도 했고,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시는 교수님이 부러울 때도 있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며, ‘즐거움’을 기준으로 나의 진로를 정하겠다는 기준이 생겼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건, 상대적인 거지만, 즐거움은 절대적인 것이기에. ‘경쟁에서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철학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한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수업 날, 나는 또 다시 강의 노트 한구석에 글을 적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자.